

BARINGS

2025 시장 전망

NAVIGATING  
A SHIFTING LANDSCAPE

다이렉트 렌딩

CONVERSATIONS

본 자료에서는 베어링 투자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다이렉트 렌딩 시장의 최근 트렌드 및 향후 전망,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타일러 게이틀리**  
북미 사모대출  
대표



**스튜어트 매티슨**  
유럽, 아태 사모대출 및  
캐피탈 솔루션 대표



**저스틴 홀리**  
아태 사모대출  
매니징 디렉터



**줄리언 루시 , CFA**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매니징 디렉터

**줄리언 루시 (MC): 2025년 트럼프 2.0 시대의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와 운용사의 관심이 높은데요. 주로 어떤 요인들이 향후 다이렉트 렌딩(direct lending·기업 직접 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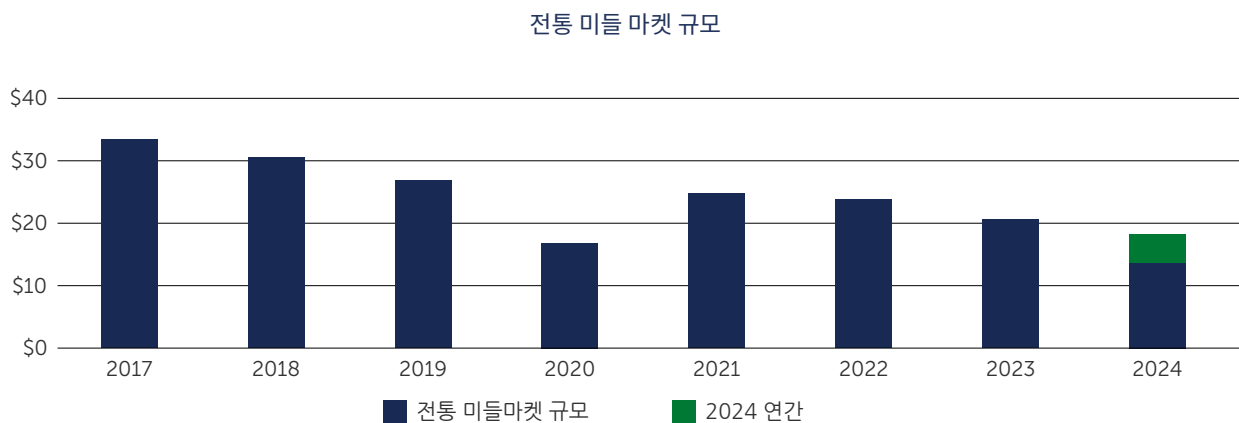
**타일러 게이틀리:** 현직 및 전직 대통령간 대결이었던 지난 대선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선거 결과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대선이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 위주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리란 기대가 일반적인 가운데, 이는 여러 미들 마켓 기업들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문제가 공급망과 광범위한 경제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북미 지역의 여러 미들 마켓 기업들은 주로 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들 마켓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튜어트 매티슨:** 관세 문제는 유럽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무역 흐름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는 특히 유럽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미들 마켓 시장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며 대부분 거래의 재무규약이 보수적이고 구조적인 보호 장치 역시 갖춰져 있어,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줄리언 루시 (MC):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2조 달러의 드라이파우더(미집행 투자금)를 프라이빗 에쿼티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M&A 활동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타일러 게이틀리:** 일부 불확실성 요인의 해소, 스폰서의 투자 유보 관련 우려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딜 규모와 관련해 몇몇 주요 지표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투자 기관들은 회계법인과 실사를 통해 대출 기업 이익의 질적 수준(quality-of-earnings)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3~6개월간 투자 은행들은 해당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시점의 문제일뿐 다이렉트 렌딩 M&A 활동이 곧 활발해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정 정도는 그랬듯이, 불확실성 원인의 일부 해소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수-매도 스프레드의 압축 시작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표1).

도표 1: 핵심 미들 마켓 거래량은 개선세, 그러나 매매자간 밸류에이션 격차에 따른 압박은 여전



Source: LSEG LPG. As of September 30,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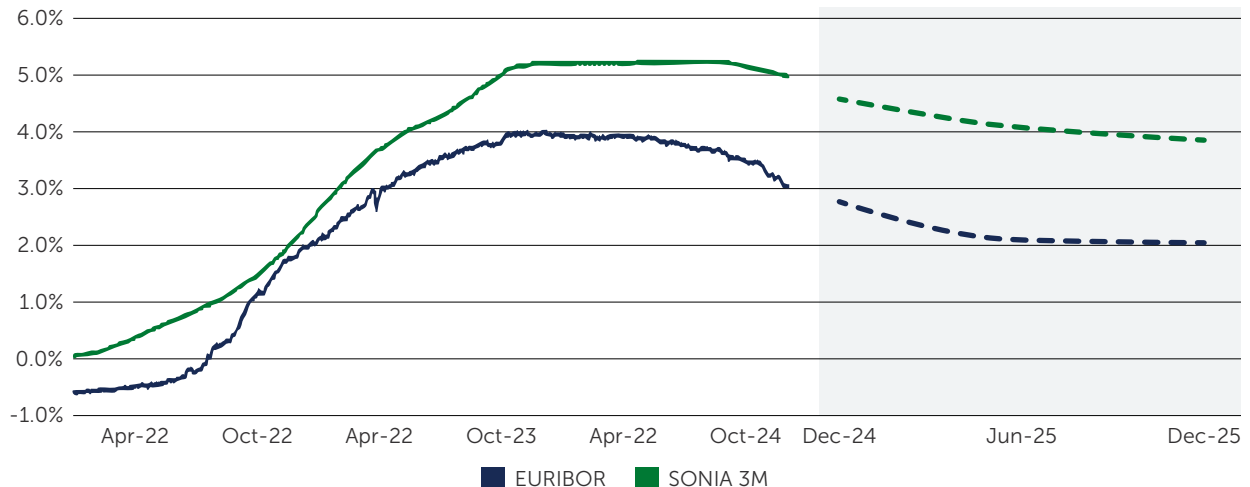
**스튜어트 매티슨:** M&A 활동이 활발해질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신규 플랫폼의 회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딜 소싱 및 대출기업 성장에 있어 어떤 플랫폼이 M&A에 어느 정도나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50개 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경우, 신규 플랫폼 딜과 ‘오프마켓 딜 소싱(off-market origination)’이 눈에 띄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마켓 딜 소싱은 스폰서 또는 과거 대출 제공 기업에 추가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애드온(add-on) 거래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M&A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스폰서의 투자 규모 확대에 기존 딜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향후 중요한 딜 소싱 기회도 기존 딜에서 창출될 수 있으리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스틴 홀리:** 아태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은 회복 요인들이 다수 보이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 M&A 활동이 의미있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M&A가 시작됐지만 마무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M&A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LP들은 프라이빗 에쿼티가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M&A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프라이빗 에쿼티 스폰서의 매수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너무 빨리 매각하게 될 경우 손실이 확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줄리언 루시 (MC):** 고금리 장기화 환경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선 일드 개선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기업들은 더 큰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미들 마켓 기업들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튜어트 매티슨:** 베어링은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지표를 살펴보고 회사 경영진 및 프라이빗 에쿼티 스폰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기업들이 금리 상승뿐 아니라 고인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력 부족, 공급 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상당히 잘 견뎌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고물가와 금리 상승은 현금 흐름에 지속적인 압박이 될 것이며, 영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마도 유럽보다는 영국에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표 2). 하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을 잘 견뎌왔던 기업이라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표 2: 유럽 vs. 영국 금리 추이



Source: Bloomberg. As of October 2024.

자본 구조의 회복력과 관련해, 대부분의 다이렉트 렌딩은 스폰서가 주도하는 ‘바이 앤 빌드(buy-and-build)’ 전략이 대부분이며, 이때 자본 구조는 단순한 레버리지의 극대화보다는 투자 유연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또는 스폰서가 자산 매입 시점에 자금을 편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부채 비중이 큰 대차대조표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본 구조가 더 보수적이며 레버리지보다는 운영 개선과 ‘바이 앤 빌드’를 통한 가치 창출에 주력하는 핵심 미들 마켓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M&A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스폰서의 투자 규모 확대로 기존 딜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향후 중요한 딜 소싱 기회도 기존 딜에서 창출될 수 있으리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스틴 홀리:베어링 포트폴리오 기업 전반의 건전성은 베어링 투자팀의 보수적인 투자 접근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본 구조 검토, 기업 대출 여부 결정 등에서 투자팀이 가장 먼저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채무 상환가능성입니다. 베어링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이자보상배율은 약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며, 고금리 장기화 환경을 가정해 이자보상배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대부분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며, 특히 투자팀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기업들은 더욱 건전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교육, 헬스케어 등 방어력 있는 섹터 기업들은 꾸준한 기업 이익, 높은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섹터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양호한 편이며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이 적고, 경기나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자본 시장 관점에서 볼 때 규모가 작고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아 미들 마켓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1, 2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이고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타일러 게이틀리:** 북미 지역 미들 마켓 기업들도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향후 포트폴리오 성과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여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일부 부담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 본질적으로 개별 기업에 국한한 요인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크게 저해할 만한 추세적인 요인은 없으며, 미들 마켓 전반의 회복 탄력성이 상당하다는 점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입증된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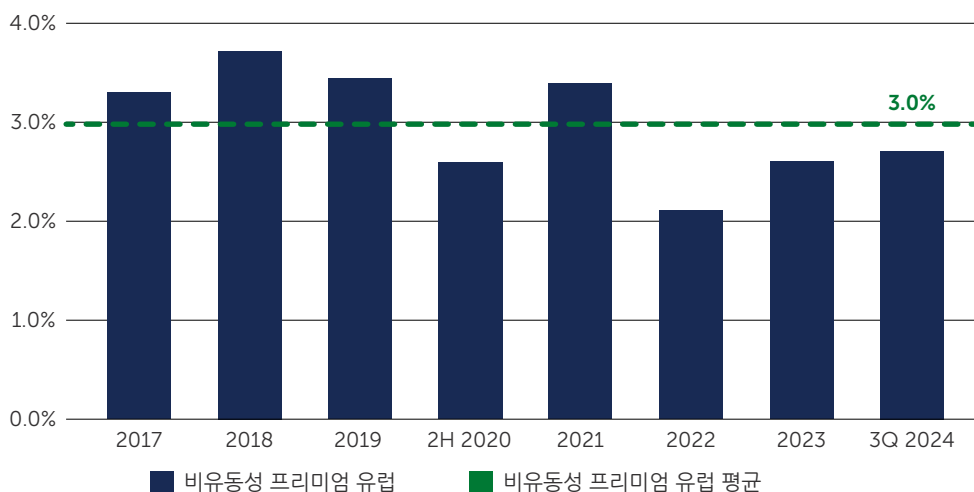
또 다른 요인은 지난 몇 년간 변화된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온 운용사와 고금리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업 영향에 고전하는 운용사간 양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홀리 매니징 디렉터는 베어링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이자보상배율(약 2.0 ~ 2.5배)이 미들 마켓 전체(1.2 ~ 1.6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어링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보수적이며 향후에도 성과 창출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줄리언 루시 (MC):** 지금 진행중인 딜의 거래 조건과 가격 구조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타일러 게이틀리:** 거래 조건과 구조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북미 지역은 다이렉트 렌딩이 가장 발달한 시장이며, 최근 몇 년간 신규 운용사의 시장 진출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신규 운용사의 출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에셋 콜렉터(asset collectors)’ 또는 ‘에셋 애그리게이터(asset aggregators)’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로 딜의 확장 또는 주도적인 딜 소싱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신규 대출기관이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오긴 했지만 충분한 규모로 자금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기관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 M&A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딜 소싱 경험이 부족한 대출기관이 자본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대출기관은 주로 미들 마켓 상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 딜 성사를 목적으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딜 조건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에서는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하락했으며, 대출 구조가 약화되고 거래 조건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사는 어떻게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매티슨 대표의 지적처럼,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존 운용사는 경쟁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기회를 지속적으로 소싱하고 장외 거래를 통해 자본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심화로 대출 구조와 프라이싱에 압박이 가해지는 동안, 베어링과 같이 인지도가 높고 (체계적으로 미들 마켓 기업에 투자하는) 운용사 대부분은 광범위한 시장 역풍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스튜어트 매티슨: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셋 애그리게이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싱 및 거래 조건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일부 대형 사모 거래에서 마진이 축소되고 대출 구조와 계약 조건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핵심 또는 전통적인 미들 마켓 거래 조건은 여전히 상당히 유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들 마켓 1순위 선순위 대출은 대형 사모 시장 딜의 성장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계약 조건이 더 타이트하며 재무약정의 보호 조항 또한 더 강력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들 마켓이 광범위한 신디케이트론 시장(BSL) 대비 제공해왔던 스프레드 프리미엄은 스프레드 압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프리미엄은 200~400bps에 달하며, 오늘날 유럽에서는 250~300bps에 근접해 전년보다 확대됐고,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일드 수준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도표 3).

도표 3: 비유동성 프리미엄 vs. 광범위한 신디케이트론 시장(BSL)



Source: Data represents 3 year discount margin (All-In Spread (DM-3) = [(fee/3) + spread + greater of floor or base rate] / (1 - fee)) - base rate) for both Barings and CS LL Index.

**줄리엔 루시 (MC): 다이렉트 렌딩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신규 대출기관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됐는데, 이것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타일러 게이틀리: 북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딜 흐름은 더 적은 거래 건수 위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용사 위주로 통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년 전에는 상위 20개 사모 대출 운용사가 전체 자본의 35%를 조달했지만 지난 해에는 상위 20개 사모 크레딧 운용사의 자본 조달 비중이 전체 자본의 70%를 육박했습니다.<sup>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규 대출기관의 출현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신규 업체가 딜에 참여하는 것을 본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신규 대출기관은 주로 20억 달러 규모 딜에서 1, 2천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는 미들 마켓 상단부에서 주로 소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률뿐 아니라 계약 조건, 구조화 등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LP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거래 조건에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렉트 렌딩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과 통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1. Source: Preqin. As of September 2024.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대출기관의 등장과 함께 성장한 자본 기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운용사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리테일 자본과 보험사라는 양대 자본 기반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후자는 안정적인 기관 자본을 대표하며, BSL보다 장기적인 상대 가치 투자 매력이 돋보이는 사모 대출에 주로 투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리테일 자본은 지속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변동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드 수준이 약 12%의 정점을 찍었을 때 다이렉트 렌딩은 리테일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일드 수준이 과거 평균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투자자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리테일 투자자와 보험사의 상대 가치 및 시장 매력에 대한 관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큰 투자자 기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향후 일부 운용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이렉트 렌딩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대비 성숙도가 낮아  
경쟁 과열은 시장 발전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스틴 홀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이렉트 렌딩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대비 성숙도가 낮아 경쟁 과열은 시장 발전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이렉트 렌딩 포트폴리오 투자물은 독립성 및 다각화 측면에서 크기와 깊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글로벌 자산 배분시 지리적 다변화에 일부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환경의 변화, 경쟁 과열 속에 운용사들은 이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스폰서에게 실행 가능한 파이낸싱 솔루션을 제시하고 은행의 자금 조달 공백을 보다 의미 있게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어링이 선진 아태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 경제의 리스크 대비 수익이 미국, 유럽의 핵심 다이렉트 렌딩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의 규제 및 파산 관련 법규는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슷하며, 국가 신용 등급은 미국,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지속적인 은행 대차대조표 축소로  
광범위한 파이낸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운용사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줄리언 루시 (MC):** 베어링의 다이렉트 렌딩 플랫폼은 거의 전적으로 스폰서 지원 대출, 즉 프라이빗 에쿼티가 소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와의 협업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또한 해당 인사이트로 향후 다이렉트 렌딩 시장엔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타일러 게이틀리:** 스폰서들은 점점 더 적은 수의 운용사와 더욱 많은 일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지속적인 은행 대차대조표 축소로 광범위한 파이낸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운용사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향후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다이렉트 렌딩뿐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채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private placements), 포트폴리오 파이낸스(portfolio finance) 등과 같은 영역에서 스폰서와 얼마나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베어링 플랫폼은 이러한 의미에서 독보적입니다. 베어링의 투자 솔루션은 규모에 맞는 확장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다양한 파이낸싱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섹터 IQ(Investability Quotient; 투자 매력)와 분야별 전담팀을 구축해 잠재 대출기업과 함께 발전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전체 사이클에 걸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대출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스튜어트 매티슨:** 게이틀리 대표 의견에 동의하며, 오늘날 스폰서와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에는 현재의 파이낸싱 니즈뿐 아니라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의 파이낸싱 니즈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스폰서와의 체계적인 협업 관계 속에서 파이낸싱 니즈가 변화하더라도 기업의 장기 성장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게이틀리 대표가 지적했듯이 파이낸싱 니즈는 장기적으로 선순위 다이렉트 레버리지 바이아웃 렌딩뿐 아니라 캐피탈 솔루션, 포트폴리오 금융, 자산담보 금융(asset-backed finance), 지분 공동 투자(Equity Co-investments) 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공모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폭을 갖춘 대출기관은 스폰서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다이렉트 렌딩 시장 전망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토론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베어링자산운용은 기관 투자자 및 보험사, 판매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4,310억 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의 자회사인 베어링자산운용은 채권, 실물 자산, 캐피털 솔루션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및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 공·사모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중요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채권 투자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투자성과 부진 및 이익금 초과 분배시 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용도는 판매사 사내한 또는 가입고객 열람용으로 제한함.

전문 투자자 및 판매사 배포용.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현재 의견 및 예상, 예측에 근거한 예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 정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결과는 예측 자료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기에 인용된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투자 결정도 본 자료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명입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ERS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JAPAN LIMITE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FINANCE LLP,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FUND MANAGERS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SWITZERLAND SARL,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BARINGS LLC의 금융서비스 계열사로(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 으로 통칭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나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및 상표

COPYRIGHT © 2024 BARINGS.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BARINGS (또는 베어링)과 로고 디자인은 BARINGS의상표이며 미국 및 전 세계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BARINGS 에게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4131692호(2025.01.06~2028.01.05)

BARINGS.COM

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4년 9월 30일 기준